

# 의정부경찰서 램프운동

##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방문해 위문품 전달

의정부 경찰서(서장 김덕기)의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램프운동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경무과 직원들은 지난 13일 관내 녹양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꿈이 있는 땅'을 방문하여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이 있는 땅'은 혼자서 몸을 가눌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6~7명이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어렵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다. 또 생활안전과장 및 직원들과 협력단체인 시민명예경찰 등 10명은 가능등에 홀로 사시는 박영자(65, 여)할머니를 방문하여 성심껏 모금한 25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및 직원들과 협력단체인 시민명예경찰 등 10명은 지난 13일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눴다.

한 상태인 박영자할머니는 고마움에 감격해 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램프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문화시민운동실천결의대회'

## 의정부 시민단체 등 2천여명 참여

바르게살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구현)를 비롯한 자유총연맹, 새마을 지회 등 각종 사회단체 회원 및 시민 2천여명은 지난 11일 의정부 시청 앞 상설야외 무대에서 문화시민운동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정부시의 깨끗한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정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참여한 각 단체 회원 및 시민들은 거리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 후 공공장소에 난립해온 불법노점상들과 이들로 인한 거리의 무단 투기물로 인하여 시미미지 및 주거환경과 보행권이 심각한 위협받았음을 성토했으며 지난

10월26일부터 의정부시에 의하여 행해진 대대적인 불법노점상 단속 후 깨끗해진 도로에 거리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적인 도시환경정비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결의대회행사 후 실시한 가두캠페인에서 시민들과 회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평화의 광장에서 포천로 터라까지 행진을 하며 거리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과 스티커 등을 제거하는 등 거리환경정비운동을 실시한 후 해산했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의정부 시민단체 2천여명은 지난 11일 의정부 시청 앞 상설야외 무대에서 '문화시민운동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

## 의정부시, 오는 23일까지 강력대처 방침

의정부시는 오는 23일까지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관내 3,000여곳의 식품제조, 판매업소와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학교주변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제품 제조,조리,판매행위 ▶식품을 의약품처럼 선전하는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6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시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무허가(신고)업체와 부패, 변질식품 판매자 등 위해식품사범과 제조업체가 불분명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제조원을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 옛사진통해 추억속으로 여행 떠나보세요

## 의정부3동사무소

의정부3동사무소는 지난 6월부터 옛 사진을 통한 '추억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당시 사진(만 18세)과 이후 재발급시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붙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상의 옛날 사진을 희망자에 한하여 컴퓨터로 스캔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그림과 애뜻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2건의 접수를 받아 완료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의정부3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주민에 한하여 추억찾아주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인화된 사진, E-mail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신청인의 한사람인 중년여성은 유선방송을 보면서 알게 되었으며, 부모님의 사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의정부3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 회갑, 고회 등 각종 기념일 등에 추억만들기 기념사진을 무료로 전달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및 사전반상회,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있고 지냈던 오래된 추억을 선물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신뢰를 기하며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특별교육

의정부경찰서(서장 김덕기)는 지난 18일 오전 경찰서 5층 강당에서 수사·형사·여성청소년계 직원등 91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 인권보호의식 고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밀양 여중생집단 성폭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인권침해 방지대책으로 우선 성폭력피해자 조사시 여경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경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여경을 입회하게 하는 것이다. 또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녹화의 의무적 실시 및 그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술녹화실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씬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지부장, 변상현)는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윤육기 교육감에게 크리스마스 씬을 증정했다.

크리스마스 씬은 결핵예방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결핵퇴치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을 통하여 자율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매당 250원씩 판매하고 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변상현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장이 윤육기 교육감에게 크리스마스 씬을 증정했다.

### 포토 뉴스

#### 약취로 교통반야선 안된다

반월·시화공단 약취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회의가 지난 14일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회의실에서 환경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8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반월·시화 공단의 약취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진척상황을 챙겨온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다시 직접 주재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 '실사구시'의 경기방문의 해 만들도록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도청상황실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도 산하 10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단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문 성과에 대한 보고를 치하했다. 한편 손지사는 '경기방문의 해' 추진에 대해 "해의방문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실질적인 방문이 이루어져 '실사구시'의 경기방문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 종목별 트랙우승한 시청사이클팀 격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14일 시청실에서 시청사이클팀이 지난 12월 5일 태국에서 개최된 트랙아시아컵에 출전해 종

목별구간 트랙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고속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호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